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요촌동

고구마·들깨재배로 행복나눔 실천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 주민자치위원장 유지우)은 17일, 관내 500여평의 유휴지(위드야파트~교육문화회관간 도로)에 고구마 및 들깨를 심었다.

이른 새벽 5시부터 시작된 고구마·들깨심기는 주민자치위원과 직원 40여명이 동참해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힘든 작업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날 심은 고구마·들깨는 가을철에 수확하여 불우이웃 등 관내 경로당을 방문, '행복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유지우 주민자치위원장은 "유휴지를 이용하여 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로 이웃을 위해 행복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참여해주신 분들의 온기와 함께 고구마·들깨가 좋은 결실을 맺어 개가 쏟아지는 요촌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해숙 동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솔선하여 참여해 주신 자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복나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산면, 마을 양심화단 조성

김제시 황산면(면장 강갑구)은 17일 깨끗한 황산면을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인 신기마을과 종명마을에 양심화단을 조성했다. 해당 지역은 그간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곳이었다.

이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여 주민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폐기물을 정비하고 장미 10주, 철쭉 40주 등을 식재해 마을 양심화단을 만들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양심화단조성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양심화단을 관리하면서 무단투기 감시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마을 양심화단 조성사업에 참여한 생활개선회 강정미회장은 "마을에 양심화단을 만들어 예쁜 꽃을 심었으니,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백구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 김제시, 올해 산업단지 지정승인완료... 2022년 준공예정

지난 5월 백구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백구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제시는 2014년도부터 백구면 부용리 일원에 총 3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장차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32만7903㎡(약 10만평)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2018년 2월 28개 기업에 분양을 완료하였다. 우선은 21개 기업이 가동중으로 약 400여명을 고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미 14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여 전체면적의 100% 분양 예정으로 향후 350여명이 투자되고 320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됨에 따라, 세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새만금 국제공항 확장, 상용차 자율주행 융복합 기술개발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최초 특장차 집적전문단지로서 특장차 산업을 선도하는 김제시가 새만금신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특장기계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만큼 기계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특장기계산업 및 연관 기자재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를 김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자기인증센터가 구축되어 기업의 운송비용이 연간 20억이상 절감되는 등 특장차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리적 이점으로 그간 많은 특장차업체에서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 제2백구특장차 전문단지 28만7500㎡(약 8만7000평)를 추가로 조성하여 2019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4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여 전체면적의 100% 분양 예정으로 향후 350여명이 투자되고 320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됨에 따라, 세수

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새만금 국제공항 확장, 상용차 자율주행 융복합 기술개발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최초 특장차 집적전문단지로서 특장차 산업을 선도하는 김제시가 새만금신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특장기계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만큼 기계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특장기계산업 및 연관 기자재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를 김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17일 완주군은 '오픈 일자리, 모두의 일자리, 하나의 일자리'에 관한 일자리정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 오픈, 모두의, 하나의 일자리 만든다

## 완주군, 일자리정책 주민공청회 진행 ... 10대 추진과제 발표

완주군이 일자리정책 주민공청회를 열고, '오픈 일자리, 모두의 일자리, 하나의 일자리'에 관한 완주군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17일 완주군은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기업대표, 구직자, 대학생 및 13개 읍면 주민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일자리, 모두의 일자리, 하나의 일자리'에 관한 완주군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3대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24개 일자리 세부사업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공청회를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수요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 실천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기업을 위한 '오픈 일자리'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기업 공동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재직자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등 일하고 싶은 기업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구직자 수요 대응을 위해 ▲청년 취업자 지역 정착 지원 ▲청년 취업자 학자금 지원 ▲지역 전락사업 현장중심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복합센터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

운영 ▲퇴직자 및 신중년 컨설팅 활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일원화된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완주군 일자리 재단 설립(일자리 기관 통합) ▲가갸호호 찾아가는 구인구직 서비스 구축 ▲구인구직 인력뱅크 구축 ▲구직자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구축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 수요를 반영해 3대전략 10대 과제 24개 세부사업을 제안하게 됐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구직자 역할을 극대화해 양자가 취업시장에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로 행복해지는 오픈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 중앙도서관 '팔방美in 인문학' 특강

### 오늘 윤광준 작가 '어떻게 좋은 것을 알아보는가?' 강연

완주군이 2019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선정, 문학과 예술을 통합한 '팔방美in 인문학: 인문학 속 8가지 주제로 본 아름다움'을 진행한다.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4개월간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팔방美in 인문학은 융·복합 주제를 다루는 통섭형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공간, 디자인, 조경 등 8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화) 저녁 7시에 첫 개최되는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심미안 수업>, <생활명품>의 저자이며 사진에서 미술, 음악, 건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활동하는 윤광준(윤광준사진대표)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윤 작가는 '어떻게 좋은 것을 알아보는가?'란 주제로 예술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 없이 나의 미적 감각을 깨우는 심미안에 대

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7월 2일에는 이내옥 미술사학자, 7월 6일 안지훈 Tecno한국지문화 속 8가지 주제로 본 아름다움을 진행한다.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4개월간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팔방美in 인문학은 융·복합 주제를 다루는 통섭형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공간, 디자인, 조경 등 8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화) 저녁 7시에 첫 개최되는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심미안 수업>, <생활명품>의 저자이며 사진에서 미술, 음악, 건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활동하는 윤광준(윤광준사진대표)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윤 작가는 '어떻게 좋은 것을 알아보는가?'란 주제로 예술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 없이 나의 미적 감각을 깨우는 심미안에 대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행정동우회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위해 앞장"

### 김제시, 행정동우회 초청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행정동우회(회장 임창의) 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퇴직 공무원들과 주요 시정 및 지역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시민소통·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행정동우회 회원들과 박준배 시장은 비롯한 관련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의 행정동우회장과 회원들은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동우회가 작은 힘이나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동우회원이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